

##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 1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 한단 말 참 좋도다
  - 2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땀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 3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 4 주 예수 날 사랑 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 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 5 주 예수 날 사랑 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 후렴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 563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 1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 하소서
- 2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 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 주소서
- 3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 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 갑니다
- 4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 하소서 아멘

11월 29일(금) 기도 담당 : 이윤식 집사

## 이른아침예배

인도 : 이신기 목사

예배를여는말 ..... 인 도 자  
 신 앙 고 백 ..... 사도신경 ..... 다 함 께  
 찬 송 ..... 202장 ..... 다 함 께  
 기 도 ..... 김한기 집사  
 성 경 봉 독 ..... 신명기 7:1-11 ..... 인 도 자  
 찬 양 ..... 새벽찬양대  
 설 교 『“불쌍히 여기지 말 것이며”의 영적 의미』 이상학 목사  
 기 도 .....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 다 함 께  
 찬 송 ..... 563장 ..... 다 함 께  
 축 도 ..... 설 교 자

### <신명기 목상 본문 및 설교 제목>

요 일	본 문	제 목
11월 26일(화)	신 6:10-25	여호와와 명령과 규례를 삼가 지키라
11월 28일(목)	신 7:1-11	"불쌍히 여기지 말 것이며"의 영적 의미
11월 29일(금)	신 8:1-20	왜 이리도 간절한가?

##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19년 11월 28일(목)

### 생명의 근원되신 하나님

이른 아침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주님 손에 맡겨 드리오니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 제자의 삶, 하나님 백성의 윤리를 깨달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 말씀하셨던 의미를 기억하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 민족을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길ियो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열된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북녘 땅에서 고통 받고 있는 형제자매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복음 통일 되게 하옵소서.

###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 새문안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바르게 서있게 하옵소서.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어떠한 시험과 환란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굳건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이상학 담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목회비전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새 예배당 가운데 주님의 영이 가득 넘치게 하시고 이곳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새문안의 모든 가정과 일터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병상에 있는 교우들에게 치유와 위로의 은혜를 허락해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